

# 고터~세빛 잇는 한강길 '예술'로 물들인다



부천시가 27일 건강도시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도시활동가들이 영양 관리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부천시

## 건강도시활동가 역량 강화 부천시, 만성질환 중심 교육

경기도 부천시가 27일 부천시보건소 대강당에서 건강도시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 건강증진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건강도시활동가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협력해 '고혈압당뇨병 질환 및 영양 관리'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는 고혈압·당뇨병의 발생 원인과 증상,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식단 구성법, 식품 선택 요령, 실천 사례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형 교육도 함께 제공됐다.

조용의 시장은 "부천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건강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강도시활동가들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안내자로 더욱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주도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활동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오산시의회가 27일 '오산시의회 의장 표창 시상식'을 가졌다. 이상복(가운데) 의장이 표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 오산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 '통장 8명, 주민 소통에 감사'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의회 의장 표창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소통에 앞장서 온 통장들을 표창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상자는 모두 8명이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에서 "통장들은 시민과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오신 분이다"라며 "오산시의 변화와 성장은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린 시민과 통장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 표창을 받은 여덟 분을 비롯해 늘 시민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해 주는 모든 통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담은 그릇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산=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서울시 서초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글로벌 복합문화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등 주요 명소를 아우르는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교통·쇼핑·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기존 관광특구와 차별화된 감성을 살려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강으로 가는 통로이자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걸으며 즐기는 미술관'으로 꾸몄다. 스페인·말라가 관광청과 협업한 '피카소 벽화'와 24명의 작가가 서울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그려 낸 '서울의 24시간' 벽화를 설치해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조성했다.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해 편의성을 더했다. 센터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전문 통역사가 상주하고, 관광객이 많은 4·10월 주말에는 7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또한 무인환전기기와 같은 편의시설도 확충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관광 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운영 중이다. 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체험하는 'K패션&뷰티 코칭스테이션'은 올해 약 3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아울러 공공미술 전시와 예술 체험이 결합된 '서초-한강 아트 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서리풀 도보여행' 등의 체험형 콘텐츠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고투물 패션 자원을 활용한 'K패션 & K팝 고투물 패션쇼' 개최를 목표 하고 있으며 K팝 아티스트 '세븐틴' 공연으로 주목받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즐기는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통합안내체계도 구축해 어디서나 고투물과 반포한강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 건전한 상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관광특구 내 상인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으며 상인화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터·세빛 관광특구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12월 지하보도로만 횡단할 수 있었던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O'자 횡단보도가 신설되며 관광특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예정이다. 향후 반포대교 남단 엘리베이터 설치와 잠수교 전면 보행화가 이루어지면 도심에서 한강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한강 가는 길'이 완성되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특구가 지정되고 초기 5년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라며 "2028년 외국인 관광객 120만 명을 목표로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자해 서초의 관광 전성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서초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글로벌 복합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빛섬 일대 야경. 서초구

서초구, 관광특구 육성... 보행로에 벽화·관광안내센터 설치 K 콘텐츠로 관광객 공략... "2028년 120만 명 목표 집중 투자"

편의시설도 확충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관광 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운영 중이다. 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체험하는 'K패션&뷰티 코칭스테이션'은 올해 약 3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아울러 공공미술 전시와 예술 체험이 결합된 '서초-한강 아트 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서리풀 도보여행' 등의 체험형 콘텐츠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고투물 패션 자원을 활용한 'K패션 & K팝 고투물 패션쇼' 개최를 목표 하고 있으며 K팝 아티스트 '세븐틴' 공연으로 주목받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즐기는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통합안내체계도 구축해 어디서나 고투물과 반포한강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 건전한 상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관광특구 내 상인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으며 상인화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터·세빛 관광특구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12월 지하보도로만 횡단할 수 있었던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O'자 횡단보도가 신설되며 관광특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예정이다. 향후 반포대교 남단 엘리베이터 설치와 잠수교 전면 보행화가 이루어지면 도심에서 한강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한강 가는 길'이 완성되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특구가 지정되고 초기 5년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라며 "2028년 외국인 관광객 120만 명을 목표로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자해 서초의 관광 전성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 종로 '창신소담 복합시설' 개관... 주차·도서관·문화공간 한자리에

## 주차난 해소·여가 공간 창출 옥인·신영동 등 2곳 추가 조성 공영주차장 458면 확충 계획

서울시 종로구가 만성적인 주차난과 여가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8일 종로구에 따르면 30일 창신·송인동 일대에 추진한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준공식을 열고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들어선 생활문화 복합시설의 완공을 기념한다.

창신소담 복합시설은 지하 5층~지상 3층 연면적 7921㎡ 규모로 조성됐으며 176면의 주차 공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코인노래방·춤연습실·댄스·한복 정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됐다.

이번 준공은 종로구가 올해 5월 개장한 삼청제1공영주차장(178면)에 이어 진행된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창신소담·옥인동·신영동 등 3곳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완공해 총 45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0월 이후 민간 주차장 11곳과 협약을 맺어 128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총 586면의 신규 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준공식은 15시부터 정문헌 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지 커팅 △사업 경과 보고 △시설 관람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2025년 5월 삼청제1공영주차장 개장으로 주차난 해소에 속도를 냈다. 지하 2층 연면적 5706㎡ 규모의 삼청제1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을 178면이나 갖춰 삼청동과 북촌 일대 주차난을 크게 완화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로 안전성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5월 삼청제1공영주차장 준공식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종로구

12월에는 옥인동 47-16 외 4필지에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732㎡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주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90면의 주차 공간과 스크린파크 골프장·다목적실·옥상 소운동장 등 생활

밀착형 시설로 설계했다. 구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영동 219-11 부지에도 공영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4면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했다.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은 주차장뿐 아니라 주민의 여가와 배움, 청소년 문화 활동을 한데 담은 복합문화공간이다"라며 "종로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와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 중계근린공원으로 '슈퍼문' 달맞이 가요

## 노원구, 내달 5일 공개 관측회 천체망원경·포토존 등 운영 사전 예약없이 누구나 무료

서울시 노원구가 다음 달 5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슈퍼문 공개관측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슈퍼문'은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때에 뜨는 보름달을 뜻한다.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지만 지구와 멀리 떨어진 상태의 보름달과 비교하면 크기는 약 12~13% 밝기는 30% 밝게 관측된다. 통상 1년에 3~4번 정도 슈퍼문이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는 슈퍼문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천문우주 과학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에서 운영하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주관하는 공개관측 행사를 마련했다. 다음달 5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중계근린공원을 방문하면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측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등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관측이 취소될 수 있으나 28일 현재 예보는 비 소식은 없는 상태다.

중계근린공원 광장에 설치된 5대의 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어린이가 대형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하고 있다. 노원구

체망원경을 통해 보름달은 물론 토성의 모습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름달 모형의 포토존을 설치하고 천문우주과학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체험부스에서는 △탄생 별자리 배지 만들기 △별자리 타투 △별자리 스크래처 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은 천문우주 분야에 특화된 과학교육 체험시설로 △코스모스관 △플라네타리움 △관측실 △빅히스토리관 △스페이스홀 등 특화 시설과 콘텐츠를 갖췄다. 특히 리모텔링을 거쳐 2023년 재개관한 빅히스토리관은 우주사지구사·생명사·인류사 분야의 최신 전

시물과 스토리텔링형 그래픽 연출을 선보이고 있다.

천체망원경 등 기자재를 통한 관측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주간에는 태양 관측 프로그램 '이글이글 태양' △야간과 주말에는 '별이 빛나는 밤'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슈퍼문 공개관측회를 준비했다"며 "희망과 상상의 공간인 천문우주과학관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 강남구, 전통시장 찾아가 무료 결핵검진

## 29일 도곡·30일 강남개포시장 상인·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능

서울시 강남구가 29일 도곡시장과 30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운영해왔으며 이번에는 전통시장 상인 등 다수의 고객을 상시 대면하고 장시간 근무하는 특성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기침·가래·발열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방치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장시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환경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으로 찾아가는 선제적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는



강남구 시민들이 도곡시장 앞에서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의 결핵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남구

계획이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상인과 시민은 문진을 시작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판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까지 연계된다. 아울러 현장에는 결핵 예방과 관리에 대한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상인의 건강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감염병 취약지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건강관리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